

가족구조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 대안가족허브센터 사례 중심*

오영란**

강대선***

본 연구는 오늘날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공백에 대하여 공동체적 돌봄과 보호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주목하고 지역공동체가 가족 이후의 대안적 방식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안적 친밀성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분석사례로 부산의 대안가족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안가족공동체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의 결과로 첫째, 지역공동체의 주요특성은, 함께돌봄의 돌봄공동체, 공동의 생산과 분배의 협동공동체, 관계 친화적 공동체의 3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둘째, 이 과정에서의 대안적 친밀성은 확장된 호혜성, 상호의존적 자립의 연대성, 그리고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영역로의 확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친밀성, 대안적 친밀성, 대안가족, 공동체, 돌봄

* 이 논문은 2020-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들어가면서

그동안 가족이라는 혈연적 친밀성에 의지하여 이루어져 왔던 돌봄은 이를 떠받치던 가족의 변화에 의해 균열되기 시작했다. 가족의 전형은,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의 가족구성원이 노동과 돌봄을 책임지면서 유지하였고 근대 이후 사랑으로 결합된 핵가족의 돌봄은 노동과 분리되어 가족성원의 사랑과 헌신에 의지하여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해체를 포함한 가족위기 담론과 실상은 실제 그동안의 부모와 자녀라는 정형적 가족 틀(the family framework)이 더 이상 가족의 전형도 아니며 오히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성애가족, 그리고 패치워크가족(김현, 2019:120)¹⁾ 등의 신조어적 가족 모습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기능과 구조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구조와 역할, 기능의 다변화를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현실은 더욱 복잡적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째는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파생시키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그와 관련한 외로움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020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 30.2%를 차지하여 2015년 27.2%에서 지속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²⁾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대해 Klinenberg(2013)는 그의 저서에서 1인 가구의 급증 자체를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로 인한 극적인 사회변동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1) 패치워크가족은 가족사회학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러나 원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모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개념이다(김현, 2019).

2)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1인가구수는 2014년 1,152천673가구로 18.4%를 차지하였던 것이 2021년에는 167만416가구로 19.6%의 비율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야기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노인과 약자들의 사회적 고립,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하고 외로울 것으로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임을 지적하였다(Klinenberg, 2013: 248).

또한, 외로움의 경우도 최근 주목받는 현상으로, 영국에서의 외로움 관련 보고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의 80%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적어도 가끔은 외롭다고 대답하고 있으며(Berguno, Leroux, McAinsh, Shaikh, 2004; Weeks, 1994), 외로움은 중년에 걸쳐 점차 감소한 뒤 노년기에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inquant, Sornsen, 2001: Hakwley, Cacioppo, 2010에서 재인용).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독거노인으로 지칭될 만큼 물리적 상황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연동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³⁾ 예를 들어 Williams와 Braun(2019)은 가시적인 네트워크의 부재 상태인 사회적 고립이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더 큰 외로움의 경험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acioppo와 Cacioppo(2018)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상호작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를 강화, 영속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는 가족 돌봄의 공백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노인, 아동과 같은 가장 취약한 가족구성원에게 있어서의 돌봄의 공백은 개별가족의 일시적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Roseneil과 Budgeon(2004)은 친밀감과 돌봄의 측면에서 점점 더 가족을 넘어 가족처럼 함께 살지 않는 친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oseneil, Budgeon, 2004:135). 이에 현재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제도적 정책적 개입들이 이

3) 강대선 오영란 조혜정 김혜정(2021)의 연령별 성인기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연령기보다 노년기의 외로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관련 요인 가운데에서는 경제상황 만족과 대인적 사회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제적, 사회 관계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제기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내외적인 노력,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에서의 지역민의 상호활동, 또는 다중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등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가족 돌봄 공백이 모두 충족되기에는 돌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돌봄의 욕구라는 측면에서 정서적 돌봄, 경제적 원조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의적인 의미가 포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의 사회적 돌봄은 주로 신체적 수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정서적 원조를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경제활동 지원도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 지원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자 개인에 대한 연계적이며 전인적인 돌봄으로 매칭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권 돌봄의 한계와 가족적 공백의 한계 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동체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가족은 사회 속에서의 전통적 규모 형태를 벗어나 마을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소규모 모임에서 등,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이,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서로에 대한 지원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안적 친밀성으로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의 공백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 주목한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과 보호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진 가운데, 지역사회공동체 조직의 돌봄과 협동의 활동은 가족의 대안적 역할로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때의 새로운 친밀성, 즉,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및 가족의 변화와 대안적 친밀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논의하고 이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이러한 선행 과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안가족허브센터를 실제적 사례로 하여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도출된 대안가족공동체의 특성과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와 대안적 친밀성의 사회적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 영역의 논의를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공동체와 대안적 친밀성

1.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간명하게 대답하기에는 공동체의 개념은 다소 다의적이며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구성물로서 등장하는 공동체의 유형이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관련되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Gold, 2005; Neerly, 2012; McGinnis, House, Jordan, 1999). Gold(2005)는 공동체란 공통점이 있고 긍정적 방식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또한, McGinnis, House, 그리고 Jordan(1999)은 community의 어원을 탐색하여 그것이 봉사 또는 의무, 선물, 희생을 포함하는 의미 범위를 갖는 라틴어(munus)에서 파생되었음을 통해, 공동체란 그 뿌리에 서비스교환이라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희생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상호의 무적 관계에 의해 결속된 개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했다(McGinnis, House

and Jordan, 1999:213). 이러한 개념의 주요의미는 상호적 협동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eely(2012)는 관계적 개념과 설명적 개념을 구분하여 공동체를 논의하였는데, 설명적 개념은 어떤 특정한 설명을 충족하는 단순한 공통적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것에 비해 관계적 개념은 특정요소를 만족하는 구성원의 집합 그 이상의 집합체로,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구성원 간의 공유된 이해 또는 믿음이라는 결합 유대와 상호관심이 강조되며, 따라서 구성원간 그리고 구성원과 공동체 전체 사이의 '인정(recognition)'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Neely, 2012).⁴⁾ Neely의 이러한 공동체 개념의 핵심은 한편에 치우친 조건충족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며,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특정설명을 충족하면서 구성원간 상호인정과 공통의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illery(1955)는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라는 개념요소를 밝히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였다(Hillery, 1955; 서재호, 2012:158에서 재인용). Hillery의 공동체 개념은 앞서 정의한 관계적 개념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그 외에도 지리적 영역을 주요 요소로 보고 있어 일정한 지리적

4) 설명적 개념의 공동체는 설명조건만을 충족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동체 내의 인식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상호 간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Neely, 2012). 또한, 관계적 개념의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두 공동체의 공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도 공통적인 동시에 차이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지리적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전혀 모르는 경우 또는 공유된 기본목표나 공통된 신념이 없는 경우 이를 공동체로 묶여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접근성에 기반한 상호적 관계라는 것이 공동체의 주요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개념요소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혹은 지역적 밀접성과 관련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Neely(2012)의 경우에도, 관계적 설명적 개념의 공동체를 분류하면서 지리적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MacQueen 등(2001)은 공동체란 일정한 장소 공유, 협력활동, 사회적 유대를 제시하고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공유, 지리적 상황적으로 협력활동 참여를 통해 연계된 사람들로 이해하였다(MacQueen et al, 2001;서재호, 2012: 159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계가 약화 되면서 공동체의 형태도 온라인을 통해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어 공동체의 주요 요소로서 이러한 물리적 지리적 조건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현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거주공동체, 돌봄공동체 등의 실제적 공동체들은 지리적 접근과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공간적, 지리적 공유가 특정한 공동체 활동에 있어 필요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리적 영역은 간과될 수 없는 요소라 할 것이다. [공간 생산]이라는 저작을 내놓았던 Lefebvre(2011)는 고대도시의 공간에 대하여 하나의 공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공간은 고유한 공간적 실천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은 그 자체로서 발생과 형성, 버려온 시간과 그 안에서의 일상적 반복 활동을 통해 공간을 생산하고 지배하며 전유해왔던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Lefebvre, 2011: 77-78). 즉, 지리적 장소성으로서의 공간은 그 안의 사람들이 유지해왔던 삶의 리듬을 드러내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공동체의 공동체성에도 주요한 매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비

교적 접근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와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공동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먼저 첫째, 개인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공동체이다. Hobbes(1992)는 개체중심적 계약론에서 서구 근대의 개인은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타산에 능한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관계로, 협력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협력적 연대의 여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Hobbes, 1992; 권용혁, 2012: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개인은 이후의 Rolls가 강조한 원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관계로 논의되었지만(Sandel, 2010:199), 여전히 개체중심 계약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 즉 평등하고 합리적, 자율적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더라도 개인 간 혹은 국가 간 완전한 평등 관계를 보장하기는 실제 어려우며, 권용혁(2012)의 지적대로, 실제로는 개인 중심의 사회관계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타산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간관계로, 그리고 그에 내재해있는 문제점으로 연결되어 불평등이 확산되는 현실을 낳는다. 이에 대해 공동체는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심리 정서적 일체감이나 자발적 협력이 존재하며 상호의 곤란을 재분배나 협동적 나눔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개인화의 심화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에 대한 대처로서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공동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 현실에 대한 '이상'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실체적 존재'인 공동체이다. 이선미(2008)는 Nisbet과 Hillery의 공동체 개념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는데, Nisbet이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실체를 지칭하기보다는 한 사회의 이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Hillery(1955)는 공동체가 실체를 전제하고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

실의 구성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선미, 2008:102에서 재인용). 즉, 공동체란 현실에 반하는 이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 사회의 현실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롭게 구현해내고자 하는 실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미영(2015:196)은 공동체 개념의 분석적 탐구에서 공동체의 주요의미는 사회적 것의 직접성으로 공동체는 모든 종류의 사회에 속함의 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상상하는 양식으로 현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실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실체적 공동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생산공동체는 제도권 내에서 생활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빈곤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로,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운동을 통해 경제적 나눔을 이어간 실체적 공동체였으며, 이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급여와 자활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대비되는 상대적 의미의 접근을 통해 살펴본 공동체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상호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상호돌봄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통의 목표와 의식을 가진 집합체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조적 현실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실현해가는 현실적 구성물로서의 실체적 존재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대안적 친밀성은 무엇인가

1) 가족 변화와 가족 대안으로서의 지역공동체 의미

이상에서의 공동체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재하는 지역 사회구성물로서의 지역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오늘날 현실에서는 기존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돌봄과 보호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경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친밀성과는 다르게 드러나는 대안적 친밀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가족 대안 등의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근원으로서 가족에 관한 의미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기본적 정의는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생식의 특성을 가진 사회집단으로 그들의 자녀 또는 양자로 구성된 것(Murdock, 1949; 차선자, 2008:47에서 재인용)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사회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가족은 최근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의 혈연중심적 동거만을 가족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가족의 붕괴와 재형성의 수준이 증가하는 시기에 가족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왔던 것(Roseneil, Budgeon, 2004:136)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Elisabeth Beck(2008)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를 통해 전통가족의 변화에 대해 그 조망 불가능성을 말하며 전통적 가족 이후에 오는 가족 형태의 윤곽을 재혼가족, 대체가족, 확대가족 등 다양한 대안적 방식의 가족으로 개별화된 자들의 연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가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전통적 가족(the family)개념에 대응하는 시도로서 다양한 가족(families), 예를 들어 20-30대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가 60%로 증가하는 비혼동거가족⁵⁾ 등 다양한 가족 모습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조금씩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가족 대체 방식은 대안적 가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2010)은 농촌 지역의 노인공동체가족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가족을 그동안 수행해온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기능적 결합체'로서 가족의 대안

5) 통계자료 출처는 경향신문, 기획시리즈 [우리도 가족입니다]. 2018.1.2.

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공동 주거와 경제적 협동 그리고 돌봄에 있어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들이 있으며 이는 규범적으로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가족적 유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족적 대안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이진숙, 2010:106). 또한, 류도향(2020)은 가족 확장의 원리를 새롭게 탐색하려는 시도에서 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근대가족 담론에서 정상으로 간주 되는 가족과 동일화할 수 없는 가족들을 포괄하면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같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적인 여러 관계성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보편적 가치를 재설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대 정신적 요구를 담고 있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류도향, 2020:472-473). 이렇듯, 대안적 가족이 가지는 의미는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인 가운데, Roseneil 과 Budgeon(2004)의 지적이 중요해진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적 삶을 살고 있는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우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례가 전체인구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가의 관심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제시하는 가능성, 즉 친밀한 삶에 대한 일반적 명제의 공식화에서 친밀감과 돌봄의 네트워크의 변화 흐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Roseneil, Budgeon, 2004:153).

그렇다면, 이에 토대하여 가족의 대안적 기능을 공동체 방식으로 엮어내는 특성을 가진 것이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족의 대안적 기능과 공동체 방식을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보면,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결합체로서 다양한 거주방식과 협동 돌봄 등을 통해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한 여러 관계성을 가지고 상호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통의 목표의식을 가진 집합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김미영(2015)에 의하면, 공동

체는 인간의 생존방식이면서 삶의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개인적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할 때 주류사회의 접근방법에 대항하는 새로운 해결책과 대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공동육아 교육공동체, 공동주거운동,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의 현실적 형태를 통해 사회연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의 대안적 기능으로서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개인에게 내맡겨진 가족 공백의 문제, 즉, 돌봄과 경제적 자립, 정서적 나눔의 문제에 대해 유대와 협동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구현해보고자 하는 실재적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실에서 가족 변화로 인한 공백 등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공동체를 찾거나, 또는 가족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를 가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포괄적으로 가족의 대안 방식으로서의 공동체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안적 친밀성이란 무엇인가?

이 절에서는 오늘날, 가족의 대안적 기능으로서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족의 전유처럼 생각되어 왔던 친밀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대안적 친밀성은 지금까지의 가족과 같은 사랑과 애정의 친밀함을 재현하는 것인가, 혹은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결속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에 주목한다. 대안적 친밀성은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적 생활적 연대로서, 협동과 유대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친밀성과 그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서구에서 근대사회의 탄생과 함께 강조된 것은 자율적 개인이었고, 근대사회에서의 개인간 친밀성의 양식은 낭만적 사랑이었다(신경아, 2014). 또한, 근대가족은 Shorter(1975)의 논의를 빌리면 남녀 간의 애

정과 사랑의 결합을 그 요건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였다(千田有紀, 2016:31에서 재인용). 이렇듯 근대가족은 사랑을 중심으로 결합되며 이때 가족이 가지는 친밀성은 특별한 애정의 관계임을 말하여왔다. 일본에서의 근대가족을 논의한 落合(2012)는 친밀성을 근대가족의 성립에서 주요 특성으로 보고, 근대가족은 그 이전의 전통적 가족에서 개인을 억압하는 획일적 결속 관계를 대신하여 자립한 개인 상호 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의 중심을 친밀성으로 보았다(落合惠美子,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성은 근대가족의 사랑과 애정의 중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친밀성은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사랑의 의미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Luhmann(2009)은 그의 저서 [열정적 사랑-친밀성의 코드화]를 통해, 친밀성이란 “인간들 간의 높은 상호침투”⁶⁾라 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한쪽에 유관한 것이 거의 언제나 다른 쪽에도 유관한 것이 되며 그에 따라 소통적 관계들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이면 둘 중 한쪽의 행위만이 아니라 선택적 체험이 이미 다른 한쪽의 행위에 유관한 것이 된다는 점을 통해 친밀성이 특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Luhmann, 2009:232-233). 즉 친밀성을 상호 제약적인 관계, 상호 간의 선택 행위에 의한 연관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친밀성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Luhmann의 친밀성은 반드시 가족으로 환원하는 것은 아니며(정

6) 덧붙이면, 점진적인 침투라는 성격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의 개별인간 그의 기억들 그의 태도들을 형성하는 것의 총합에 타인은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 루만 이 말하는 상호침투란 체계와 그 환경속에 있는 체계 사이에서 성립하는 구조적 결합의 특수한 경우, 즉 한 체계가 그 환경의 특정한 체계와 상호제약 관계에 놓여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체계가 자신의 복잡성을 다른 체계의 구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침투라고 하고 이것이 서로 돌아가며 일어날 때 즉 두 체계가 각자의 고유한 복잡성을 서로 돌아가며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때 상호침투가 가능하다 (Luhmann, 2009:29)

성훈, 2011:360), 오히려 친밀관계를 위한 코드화 과정에서 사랑과 우정의 경합이 있었던 점을 볼 수 있다.⁷⁾ 이러한 Luhmann(2009)의 논의에서 새로운 대안적 친밀성은 상호연관성을 높게 가지는 관계이면서 사랑과는 다른, 때로는 우정의 관계이기도 하는 감정연대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적 친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논의를 친밀권(intimate sphere)으로 좀 더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濟藤純一(2009)는 친밀권에 대해 친밀성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전개되는 모든 장이며, 그곳은 타자와의 전면적인 연결의 존재와 인간의 전면적 신뢰가 필수적이며 약자에 대한 의존지점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나 삶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삶의 장소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濟藤純一, 2009:106). 이러한 친밀권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 타자와의 삶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매개로 하는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친밀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濟藤純一, 2003;有賀美和子, 2011:39에서 재인용). 또한, 친밀권은 기존의 정상이라고 인식되는 가족이 아닌 다원화된 가족에의 접근이라는 점,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대처해가는 공동가정이나 자조그룹 등과 같은 관계적 공간으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다(濟藤純一, 2009:108).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친밀권은 섹슈얼리티에 의한 연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성, 이른바 공생적 커뮤니티로, 구체적 타자와의 의존이 상호수용되는 관계성의 창출과 유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가족의 대안적 방식으로서

7) 결국, 사랑이 상호작용 관계에서 분화의 특성을 가진 섹슈얼리티를 갖춤으로서 경합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친밀성을 위한 코드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Luhmann, 2009:126-127)

의 공동체와 이를 관통하는 대안적 친밀성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성훈(2011)이 말하는 친밀공동체⁸⁾ 라는 의미와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를 통해 보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탐색한 김미영(2015)의 논의에서는 공동체가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실체로서의 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⁹⁾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는 변혁적인 것으로 공동육아, 공동주거,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돌봄공동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은 다소간 경계지어진 지역에 함께 살면서 노동 등 생활의 주요 면면을 공유하거나 협동적으로 꾸리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있는 공동체로 보았다(김미영, 2015:210-211). 이는 곧 지역공동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거주공동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주거방식을 동일공간, 인근 혹은 같은 건물내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유형이다. 김혜경(2017)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청년층 주거공동체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동사(우리동네 사람들)는 귀촌을 준비

8) 도시 마을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친밀관계에 대하여 친밀공동체로 보면서, 개념으로는 기본적 친밀관계를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 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으로 규정하였다(정성훈, 2011:364).

9) 이외에도 인류공동체 민족공동체 등의 이념으로서의 공동체, 현대인의 자기직업 사회적 위치에 따른 역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실천공동체,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공동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논쟁도 공동체의 현실 가운데 하나로 보는 등의 구분을 통하여 현대의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김미영, 2015)

하는 청년들의 공동체로, 아플 때 누가 돌봐줘도 되는 일종의 복지망, 안전망 등의 느낌으로 공동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비(비혼들의 비행)는 비혼여성들의 독립 주거와 생활네트워크의 장으로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를 운영하면서 협동조합도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이다(김혜경, 2017:158-160). 특히, 비비는 2006년 비혼 1인여성가구가 같은 아파트단지에 입주하면서 이웃들과 삶을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1인가구 네트워크가 공동체로 발전하였다(이미정, 2017:333). 이들은 대안적 경제공동체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1인 1직업의 자기 부양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산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방식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면서 2016년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다(이미정, 2017:336).¹⁰⁾ 우동사와 비비와 같은 거주공동체에 대해 김혜경(2017)은 각각의 공동체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 가운데에도 가족을 대체할만한 정서적 경제적 지지집단이면서 안정적 돌봄의 교환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상호의존하는 돌봄과 거주하는 지역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민주적 의사소통 그리고 느슨한 이념적 특성으로 변주가 가능한 열린 공동체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두사람의 자매와 친구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하오까(하우스 오브 까치)’는 그들 스스로 집이 아닌 주거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스스로의 공동거주를 친구들끼리 잠시 사정이 맞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룸메이트 이상의 의미이며, 나도 상대를 돌보고 나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말한다(경향신문, 2020.3.19.). 이동옥(2020)은 주거공동체들의 특성을 통해 독립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10) 비비는 최근에는 여성 노인이 되어서도 함께할 공동체를 위해 프랑스 등 해외 노인 주거공동체를 찾아보면서 비혼여성의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경향신문, 2020.3.5).

서로를 보살피고 의존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보호자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어 대안적 가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이동욱, 2020:81).

둘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는 대부분 마을공동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으로는 어떤 공동체성에 주요가치와 활동의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돌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돌봄을 위한 공동체와 노인돌봄을 위한 공동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아동돌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수정(2012a)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과천지역의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마을을 살펴보았다. 공동육아를 통해 소통과 관계의 돌봄을 구성하고 다시 대안학교를 구성하며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시민 중심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체성 확장과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를 위한 매개로서 지역주민의 품앗이방식의 공동육아 참여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 문화의 확산과 호혜적 관계의 발전으로 지역 안에서의 돌봄공동체가 가능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공동체마을을 지향하며 이루어진 공동체적 돌봄은 대천마을학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이귀원, 2017).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천마을학교는 북구공동육아조합을 모태로 시작되어 ‘마을이 학교다’는 가치를 가지고 마을 모든 사람의 배움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마을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의 일환이 되고 있다. 이귀원(2017)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확대가족 혹은 마을 그 자체를 이루어갔다고 보았다. 즉 조합원의 마음을 열고 각자의 집을 열어 밥을 나누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친밀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고 서술하였다(이귀원, 2017:311).

한편, 공동체 방식의 아동돌봄 가운데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류경희와 김순옥(2000)은 1990년대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마을에서의 대안적 가족 형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공동체는 자녀 양육을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 공동체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개별가족의 공통된 문제를 성 평등한 관계구조를 통해 가족 간 함께 해결하면서 공동체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간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어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아동돌봄이라는 주제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황선영(2020)의 연구는 최근의 부모공동육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질적 연구로, 공동체적 돌봄에서의 좋은 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협동조합형 공동체 방식은 부분적인 공동화를 추구하면서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사람들 간 생활을 공동화하는 대중적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요구가 있을 때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망할 수 있다.

다음은 노인돌봄을 위한 공동체를 살펴보면, 장수정(2012b)은 돌봄공동체인 마포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사례로 살펴보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시작되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면서 제도권 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여성돌봄노동의 재평가를 통해 돌봄 제공자에 대한 배려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돌봄실천과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대안을 실천하면서 제도권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로서는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을 공동체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공동체 사례가 가지는 특성은 규모와 구조를 갖춘 사회적 장을 마련하여 구조화하면서 지속성을 갖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구성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영란·송치선·이철선(2013)의 연구에서 보이는 여민동락공동체의 품앗이학교는 농촌 지역의 경로당을 거점 공간으로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독거노인을 돌보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돌봄공동체이다. 여기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평소 주변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는 밥상을 통해 서로 정서적 지지를 얻고 신체적 건강도 유지하는 공동체 밥상을 살펴볼 수 있다(김영란·송치선·이철선, 2013:36-37). 품앗이학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마을 노인들의 상호돌봄과 친밀성을 위한 활동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일 홀로 식사를 해야 하는 독거노인에게 함께 먹거나, 고립된 노인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감사하고 이야기 듣기 등의 일상적 친밀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상호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다. 특히 함께 밥 먹기의 과정은,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안가족공동체 참여자들이 ‘하루에 한끼 정도는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로 대답한 부분(김일범, 2018:18)과 연결되어 가족의 대안적 모습으로서 상호관계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변산공동체를 사례로 대안공동체를 고찰한 이동일(2015)의 연구에서 대안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을 식구로, 외부인은 손님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식사라고 하는 먹는 행위는 단순히 부족한 허기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행위이며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식사는 공동체적 행위이며 관계의 표현양식으로, 가족의 공동식사가 과거가 되고 최근의 ‘혼자 밥 먹는(혼밥)’ 현상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식구와의 공동식사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동일, 2015:109). 또한 전지훈(2020)은 여민동락공동체에 대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

활 도움을 주는 생활세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특히 이 사례의 특성으로 생산활동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즉, 지역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노인의 생산 활동 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소득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외로움과 고독, 소일거리 필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흥동 마을공동체 연구(진명숙, 2020)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친밀과 돌봄에 기반한 여성들의 공동체 활동이 노인돌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을 내 뜰 뜨는 방(뜸방)을 통해 마을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활동 장소로 이용되었다. 특히 뜰방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노인을 위해 뜰을 떠주는 곳 이라기보다 뜰을 매개로 상호돌봄의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였으며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노인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도와주는 품앗이 뜰로 상호부조를 행하는 것이었다(진명숙, 2020:82).

한편, 해외에서의 공동체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로푸키리(Loppukiri)는 2006년 노인들이 스스로 문제해결 해보겠다는 노력으로 공동주택형태로 이루어진 노인공동체이다.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요양시설이 아닌 노인공동체를 대안으로 생각하였다(김영란 외, 2013:82). 모두 58가구 69명이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단순히 모여 사는 곳이 아닌 모두가 가족처럼 생활한다. 즉 공동식사와 그 준비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함께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모두가 가족이며 동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상욱, 2015:125).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지는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공동체의 형식이나 방식 그리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초점을 두는

가 등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돌봄과 공동경제방식에 대한 과 정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주거공동체에서의 상호돌봄과 마을공동 체에서 나타나는 아동 및 노인돌봄 영역에서의 협동적 돌봄의 과정 등 은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생산 활동을 위한 접근으로서는 협동조 합방식을 통한 공동생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안가족허브센터의 대안가 족공동체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 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있지만 대안가족을 표방하면서 사회적 가족 을 이루어가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며,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여진 가족 대안의 공동체 친밀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안가족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고 보여진다.

Ⅲ. 분석 대상사례 개요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연 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한 개인, 가족, 집단, 지 역사회 또는 공동체, 조직 등과 같은 단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이며(신 경립·조명옥·양진향 외, 2004:448),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로서의 사례에 대하여 면접, 문서와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정보원 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탐구하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이다(Creswell, 2015:125). 이러한 사례연구는 특정 실재에 대한 묘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의미의 명확함과 이해를 더해주며 경험의 확장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신경립 외, 2004:452-454). 또한, 실제적 일 상 사건들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도록 해준다(Yin, 1994; 최희경, 2014:46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실제적 대안가족공동체 사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대안가족적 특성과 이 과정에서의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사례로서 살펴보는 지역공동체는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이하, 우리마을)이 운영하는 대안가족허브센터(이하, 대안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이다. 대안가족공동체는 사회문제의 대안을 마을에서 찾기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마을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2017년 당시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가운데 33.8%를 차지하는 점과 고령화를 배경으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의 고독사·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에서도 편차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진단되고 있었다(김영민, 2018:34-35). 이때, 이러한 노인 빈곤과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언론기관인 국제신문과 그동안 계속 마을 운동을 해왔던 우리마을이 협력하여 활동이 시작되었다. 실제 이들 협력팀은 마을 속으로 거주를 마련하여 들어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¹¹⁾ 마을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면서 마을 노인과 마을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안가족임을 인식하게 되고(김영민, 2018:36), 이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으로 실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안가족의 의미는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11) 실제, 동네에서 월세방을 얻어 거주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폐지줍기, 밭에 물주기, 고장난 선풍기 고치기 경로당에서 노인들과 음식 나누기, 놀이 등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하였다(국제신문, 2020.12.28.). 이러한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진 부산의 개금3동은 부산지역 가운데에도 고령화율 24.9%로 부산 평균 15.4%보다 높고 노인 1인가구 비율이 37.2%로 높은 지역이다(김일범, 2018:11).

한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가족을 의미하며(김영민, 2018:35-36), 덧붙여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1차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마을 단위의 주민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김일범, 2018:11). 이를 마을에서 실천하는 방식은 마을에 있는 기존의 주민 소모임 및 욕구나 여가, 취미 등을 중심으로 4-6명이 하나의 대안가족을 구성하고 대안가족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김일범, 2018:18). 또한, 마을 노인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력질주 협동조합은 핀란드 로푸키리(Loppukiri)의 노인공동체를 모델로 하면서 로푸키리의 작은 가족의 거점이 되는 활동적 노인협회 협동조합과 같이 마을의 대안가족의 연결거점이 될 수 있는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마을 노인들의 참여를 통한 생산과 경제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마을 노인들의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필요로 하면서 지역의 여러 후원의 도움으로 대안가족 센터 공간이 마련되어 마을 노인들의 협동조합 활동과 함께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방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다(국제신문, 2017.12.4.). 최근에는 노인들이 개별가정에서 큰 세탁물을 세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때가 있다’라는 이름의 골목빨래방이 만들어졌다. 이는 과거 노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마을 빨래터를 연상하고 그곳에서 서로 편안히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사례로 대안가족공동체를 살펴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진다. 첫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대안가족을 목적으로 지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는 드물다는 점이다. 대안가족 공동체는 ‘사회적 가족’을 지향하면서 마을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상호 돌봄과 관계를 회복해가기 위한 공동체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안가족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확장성이다. 대안가족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의 심화와 이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서면서 이루어진 특성이 있어, 마을주민들에 의해 먼저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안가족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지금까지 규범적이고 획일적인 가족돌봄과 보호의 모습이 전형처럼 인식되어온 부분을 다양한 대안적 가족이라는 접근으로 해당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다면 이는 확장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가족공동체는 활동 이후 부산시의 고령자대안가족자활사업의 모델사업이 되고¹²⁾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대안가족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을공동체에서의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가족공동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친밀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마을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면 토론회 자료 및 보고서, 활동가의 잡지 게재자료 등과 관련된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마을의 대안가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보충하였다.¹³⁾

12) 부산시는 전국최초로 고령자 1인가구의 빈곤 고독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가족자활공동체 모델개발에 나섰고 여기에 대안가족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2018년 3월부터 고령자대안가족자활공동체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국제신문, 2018.1.23.)

IV.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대안적 친밀성

이 장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친밀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지역공동체를 참고하면서 본 연구의 대안가족공동체 사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돌봄, 협동, 관계의 3가지 주요특성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이론적 내용에 토대하여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되는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을 살펴본다.

1. ‘함께돌봄’의 돌봄공동체 : 확장된 호혜성의 친밀성

본 연구의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주요특성은 ‘함께돌봄’으로 이루어지는 돌봄공동체라는 점이며 이 가운데 나타나는 대안적 친밀성은 확장된 호혜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의 해체를 비롯한 변화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가족돌봄의 공백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공동체적 돌봄방식은 대안적 친밀성의 구현과 관련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의 돌봄에 관한 재정의를 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실재를 분석한다. 첫째, 돌봄의 의미 확장이다. 실제, 돌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돌봄은 보호적이고 수동적 보살핌의 의미를 넘어선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전지훈, 2020), 돌봄 관계나 대상 집단과 관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모든 활동으로서의 광의적 돌봄을 개념화하기도 한다(차성란, 2019:118).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돌봄 이전의 단계, 즉,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의존의 단계에서부터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3) 우리마을의 대안가족 담당자 인터뷰는 2021년 11월 11일,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마을에서 약 50분 정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의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대응으로서의 돌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Fineman(2009)은 의존이라는 것은 인간 모습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인간발달 과정의 일부로, 모든 개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의존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특히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타인이나 사회적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2차적 의존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였다(Fineman, 2009:29). Fineman의 이러한 개념화는 돌봄과 의존이라는 것이 특정한 예외적 조건이 아니며 인간생존을 위한 상호관계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존의 범위도 생물학적 신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의존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논의하였다(Fineman, 2009:28).

이는 Kittay(1999)의 논의인 인간 의존의 불가피한 사실과 의존의 정상성과도 연결된다. Kittay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상호의존하는 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의존성을 정상성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Tronto(2014)의 논의로 살펴보면, Tronto는 돌봄을 정치사회의 중심에 두는 돌봄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정의와도 연결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진보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과 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처우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Tronto의 논의는 돌봄 개념의 광의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Duffy(2011)의 양육과 비양육의 개념을 빌어, 직접적 양육행위만이 돌봄이 아니라 양육을 위한 필수적 조건을 위한 활동인 비양육의 경우도 돌봄이라고 정의하였다(Tronto, 2014:69에서 재인용).¹⁴⁾ 즉, 돌봄이 면대면의 행위나 신체적 수발 등의

14) 예를 들어 병원은 청소 인원과 세탁 인원이 없으면 운영되기 어려운 것처럼 직접 환

협의적 상황에서 정리되기보다 좀더 광의적이며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돌봄이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처우되어야 하는 보편적 상황으로, 어떤 특별한 상태나 행위가 아니며 이는 곧 구성원의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존과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여러 논의에서 말하고 있는 돌봄의 의미는 인간 의존이라는 것이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돌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는 돌봄 또한 신체적 수발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협력과 원조 활동을 포괄하는 좀 더 광의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돌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돌봄의 의미가 광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특별한 신체적 수발을 위한 돌봄이기보다는 서로의 안녕과 안전을 돌보는 의지적 결합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 마을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김영민, 2018:37)¹⁵⁾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서의 노인돌봄은 보다 광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안가족은 독거노인 4~8명의 소규모단위로 하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도록 하면서 구성원 간의 안부와 돌봄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활동(김일범, 2021:50)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대안가족공동체에서 노인들의 상호지지는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관계회

자를 돌보는 행위의 의료진 외에도 이를 위한 필수적 조건을 위한 활동도 거시적으로는 돌봄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이다(Tronto, 2014:69)

15) 대안가족허브센터 운영법인인 우리마을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하여 알게 된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김영민, 2018:37).

복이며 그것이 빚어내는 결과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상호돌봄이다. 대안가족은 마을의 1인가구 또는 취약한 주민들을 찾아 나서는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가족공동체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일범, 2018). 이는 실제 대안가족활동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매일같이 동네 마실을 다니던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집으로 찾아가 살펴보니 홀로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 후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국제신문, 2020.12.28.)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대안가족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생활 속의 다층적 상호의존을 통해 삶의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돌봄 방식의 재정의로, 이는 돌봄에서의 관계성과 관련된다. 돌봄은 제공자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상호의존적 형태로 교류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Kittay는 돌봄이 호혜적일 수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존적 특징을 보이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역할의 교대방식 등을 통해 호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Kittay, 1999). 한편, Tronto는 ‘함께돌봄(caring with)’이라는 개념을 돌봄의 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함께돌봄’이란 제공된 돌봄의 필요와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 필요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함께돌봄은 연대성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았다(Tronto, 2014:82). 이러한 차원에서 돌봄의 방식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양자 관계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¹⁶⁾ 즉 돌봄은 양자적 관계에서만이 아닌 복합적 주변인이 함께 참여

16) Noddings가 말한 것처럼 제공자와 수혜자의 양자 관계로 보는 것은 한계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 돌봄을 혼자서 제공하지 않고 복합적 주변인 즉 병원 원무, 조력자 등과 함께 연관되어있는 것처럼 복합적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하는 과정이며 호혜적 상호관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 토대하여 공동체 돌봄을 살펴보면, 돌봄의 방식에 있어서 확장된 호혜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양자 간의 상호돌봄 제공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에서 돌봄과 의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대안가족공동체 주민들이 인식하는 대안가족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관심가지고 이해하는 마을 사람들로, 가족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였다(홍재봉, 2018:33).¹⁷⁾ 이러한 개념은 구성원들의 공동체 돌봄을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까지도 염두에 두는, 보다 확대된 복합적 관계를 포괄하고 이 과정에서 광의적 돌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활동에서 ‘직장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한 중년남성에게 쌀과 반찬 그리고 지속적 관심을 보내면서 한 사람의 가족으로 보살핀 사례(국제신문, 2020.12.28.)를 볼 수 있다. 이는 Tronto가 제안한 ‘함께돌봄’의 모습이 복합적 주변인 모두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에서의 이러한 호혜성의 확장은 다양한 돌봄 방식과 구조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돌봄 방식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이웃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간밤에 별일은 없었는지 방문하고 몸이 불편한 이웃을 대신해 장을 봐주는 것 등 소소한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지역의 공동체이며, 이들이 마을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 이때 특정 주민만이 아닌 누구나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김일범, 2021a)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대안가족공동체에서의

고 보았다(Tronto, 2014).

17) 이는 초기 대안가족허브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대안가족의 상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정의이다(홍재봉, 2018)

대안가족 구조를 보면, 공동체 내 소규모의 대안가족 구성을 4-6명의 구성원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상호돌봄이 이루어지는 한편, 마을 내 이웃의 다른 대안가족과도 교류하면서 유대적 관계를 맺고 마을의 1인가구나 취약한 주민을 돌보는 형태로 공동체 관계가 연결된다. 즉, 소규모의 대안가족들이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슨한 연대를 통해 함께돌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함께 서로를 돌보는 돌봄공동체에서 보여지는 대안적 친밀성은 함께돌봄의 상호의존을 복합적 주변인과의 교류하는 확장된 호혜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생산과 분배의 협동공동체: 상호의존적 자립의 친밀성

지역공동체의 두 번째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한 경제적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Polanyi(2009)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회 속의 관습이나 법, 종교 등 또한 모두 개개인이 협력하여 전체 경제체제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하고 있다고 보면서 (Polanyi, 2009:199),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협력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Engster(2017)는 Polanyi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인도의 마을공동체의 주요원리로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해 사회적 돌봄이 가지는 목적이 대다수 사회에서 경제적 생산의 핵심적 조직원리를 제공해왔다고 하였다(Engster, 2017:204). Engster에 의하면 Polanyi는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도 원시 사회의 특징도 아닌, 인간존재의 사회적 특성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필연적 의존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간은 생존과 발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의존하며 그래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서로의 의존을 돕기 위해 생산적 경제활동을 조직해왔다는 것이다(Engster,

2017:205).

대안가족공동체를 포함한 지역공동체들이 그 운영방식이나 형태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협동조합의 경제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Polanyi가 강조한 경제활동의 사회적 배태성이 반영되는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즉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개별적 이익의 확대 재생산에 있기보다는 상호성과 재분배에 원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개별적 자립보다는 상호의존을 통한 공동체 자립이 지향된다는 점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비비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생애 주기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1인 1직업의 자기 부양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산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방식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미정, 2017:336)도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자립하는 방안 찾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안가족공동체의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생산과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공동체로서의 특성을 보면, 첫째, 대안가족공동체의 협동조합 운영의 계기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생산을 통한 경제활동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기보다 공동체 성원의 최소한의 이익, 즉, Polanyi가 말한 사회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의 물질적 재화로 한정되는 것(Polanyi, 2009:185)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 고령자대안가족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매달 채워지지 않는 10만 원’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안가족공동체 마을의 노인들 평균수입이 42만5천 원인데, 평균 지출은 52만6천 원으로 매달 10만 원의 비용이 부족한 상태

라는 것을, 마을 노인들의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기초연금과 용돈 등이 주 수입원인 가운데 식비를 포함한 병원비, 약값 등의 지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김영민, 2018:37;김일범, 2018:15). 이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하고 마을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자식들을 위해 만들어왔던 반찬 만들기과 콩나물 키우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공동체 생산 활동을 통해 공동의 자립, 상호의존적 자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활동의 시작과 삶의 활력, 그리고 미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의미이다. 대안가족공동체의 협동조합사업은,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의 대안가족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마을 노인들에게는 뜬구름과도 같은 것이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함으로써 그 개념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민, 2018:40)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 부족분을 위한 계기도 있으면서 더불어 실제 대안가족공동체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도 현실에서의 가시적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곧 협동조합이 공동체의 주요 방향을 추동해가는 매개적 역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마을 대안가족 담당자는,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것은 마을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안가족을 묶음으로, 대안가족을 엮어주는 역할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담당자 인터뷰, 2021.11.11.)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마을의 대안가족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안가족공동체에서의 협동조합은 마을 노인들의 삶의 활력이 제공되는 매개이다. 실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서 “그까짓 것 뭐든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 변화(김영민, 2018:39), 그리고 “2년만 살다가 죽으려 했는데 5년 더 살고 가야겠다”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되고 있다(김일범, 2021b:50)는 점을 통해 볼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특성은 지향하는 자립의 의미가 재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원리에 기반한 경쟁적 개인의 경제자립이 아닌 공동의 생산과 재분배를 통한 상호의존적 공동자립으로 상호 돌봄적 경제로 재정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립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자립의 의무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 예를 들면 자립하지 못한 대상을 향한 낙인 등은 복지정책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지적되어왔던 문제이다.¹⁸⁾ 공동체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의 의미는 협동조합이 모두가 같이 투자하고 그 산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의 재분배를 통해 공동의 이익 생산이라는 돌봄 경제로서의 공동의 자립을 추구한다는 점, 혼자 서는 것이 아닌 상호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같이 서는 연대의 경제를 의미한다는 점과 맞닿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대안가족공동체가 마을 노인의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을 채우는 방식을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서로 함께 채워가기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흥동 마을공동체를 살펴본 진명숙(202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운영하는 할머니장터조합이나 초록이협동조합의 경우 가장 우

18) Fraser와 Gordon(1994)은 미국의 AFDC 정책이 미국의 정책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생계나 적절한 임금 없이 가족을 유지하고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빈곤한 여성의 상태를 주목하며 자립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의존성 이데올로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본 바 있다. 빈곤한 한부모여성에게 자립 의무가 부가되고 기한 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도덕적 심리적 문제로 전환되어 복지모 이미지와 이에 대한 경멸적 책임이 개인에게 수반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Fraser and Gordon., 1994:311)

선에 둔 목표가 이윤 창출이 아닌, 상호돌봄의 가치이며 최소한 빚지지 않되 마을 할머니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이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것을 지향한 부분이 그러하다(진명숙, 2020:92-93). 이상의 대안가족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역공동체는 공동의 생산과 분배를 통한 협동의 공동체를 이루는 특성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의 대안적 친밀성은 혼자 서는 자립이 아닌 상호의존하면서 함께 자립하는 연대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관계 친화적 공동체: 우정과 신뢰의 친밀성

다양한 지역공동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관계적 부분으로 이는 대안가족공동체에서도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관계회복이나 관계 친화적 또는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사이토(濟藤純一)의 논의를 통해 대안적 친밀성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권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 타자의 삶에 배려와 관심의 영향을 주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본 연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성은 기존의 가족적 친밀성과 실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신뢰의 관계이다. 공동체 내 상호 간의 신뢰 축적을 통해 상호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 가족과 다른 친밀성 즉 대안적 친밀성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신뢰라고 말한다. “대안가족은 상호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원래 가족은 신뢰가 없어도 자동으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안가족, 사회적 가족은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가족이 되기 어렵다”(담당자 인터뷰, 2021.11.11.)고 하였다. 실제 대안가족공동체 활동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관계회복’임을 발견할 수 있다(김일범, 2021b:50). 또한, 신뢰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주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다. 자주 만나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서 함께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상호작용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결합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 사실 지역에 같이 거주해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빈번하게 만나면서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다”(담당자 인터뷰, 2021.11.11.)고 말한다. 최근 대안가족공동체에서는 골목빨래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의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을 노인들의 큰 빨래 등의 세탁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를 통해 “빨래방을 주민교류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 마을의 빨래터 개념으로 마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빨래터에서 나누듯이 마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고 있다”(담당자 인터뷰, 2021.11.11.). 이러한 과정에서 대안가족공동체가 지향하는 자주 빈번하게 만나고 부딪히며 상호활동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일구어내면서 신뢰의 공동체로서 상호관계를 축적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우정의 관계이다. 앞서 살펴본 Luhmann(2009)의 저서에서 친밀성이 사랑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며 가족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밀성은 Luhmann이 말한 현대사회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랑과 우정의 경합에서 물러나게 된 그 우정으로 치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정성훈(2011)은 이를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보완하고 혁신하고 지원해주는 우정의 네트워크라고 하고 친밀공동체라 하였으며 이를 마을공동체에서 살펴보았다(정성훈, 2011:367). 또한, 가족을 넘어 친밀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사례를 연구한 Roseneil과 Budgeon(2004)의 경우도 그들의 인터뷰사례들에서 일상생활에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

는 것에 있어 우정은 많은 사람에게 윤리적 실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Roseneil, Budgeon, 2004:146), 우정이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 대안가족 활동의 시작 과정에서 당시 마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만들어진 소모임들이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밥 먹고 얘기하는 팀, 경로당팀, 등 4개의 모임이 있었으며 이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마을 안의 자연스러운 우정 관계의 시작이 대안가족공동체의 기초적 토대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초기의 개별적 우정에서 시작된 것이 이웃, 지역과의 복합적 우정의 관계로 확대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오늘날의 가족변동과 다원화로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예를 들면 1인가구의 증가 및 노인가구의 소외 그리고 가족의 돌봄 공백으로 야기되는 돌봄과 보호의 부재 등에 대해 기존의 가족대응이 아닌 공동체적 대응방식을 통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맥락에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안가족공동체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안가족공동체의 다양한 가족 대안적 활동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대안가족공동체의 주요특성으로 나타난 부분은 돌봄, 협동,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돌봄’의 돌봄공동체, 공동의 생산과 분배의 협동공동체, 그리고 관계 친화적 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안적 친밀성을 정리하면, 확장된 호혜성, 상호의존적 자립의 연대성, 신뢰와 우

정의 친밀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확장된 호혜성은 함께 돌봄의 돌봄공동체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 필요를 가진다는 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인 양자 간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다수의 복합적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형태로 교류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상호의존적 자립의 연대성은 공동생산과 분배의 협동공동체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Polanyi의 논의처럼, 생산적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발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며 그래서 서로의 의존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개별적 이익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호성과 재분배를 통한 상호의존적 공동체 자립을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자립이 아닌 상호의존하면서 함께 자립하는 연대성의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은 관계 친화적 공동체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공동체 내 상호 간의 신뢰 축적을 통해 상호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의 개별적 우정 관계가 공동체를 통해 이웃, 지역과의 복합적 우정 관계로 확대되어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친밀성으로 그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에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타자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것은 濟藤純一(2009:110)가 栗原(2000)의 논의를 빌어 설명한 것으로, 타자가 타자로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존재하려는 것을 긍정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거리를 줄이지 않는 것이며, 친밀권은 그러한 타자와의 느슨한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공동체에서 축적되는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은 이러한 배척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안적 친밀성은 이전의 가족적 영역의 사적 맥락에서 혈연적 성원 간의 양자적 애정과 사랑의 친밀성이었던 것에서 대안가족공동체라는 지역사회단위에서의 개방된 형태의 복수적 주변인과의 다차원적인 호혜성, 연대성, 신뢰와 우정의 친밀성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가족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이 향후 보다 지속 가능하며 다양한 확장성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되어 이의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앞서 친밀권을 살펴본 濟藤(2009)는, 새로운 가치판단을 공공 영역에 던지는 문제 제기는 다수와 다른 가치를 유지하고 재형성해온 친밀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濟藤純一, 2009:109-110). 이는 공동체는 정보나 의견교환을 통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이것을 외부로 향하여 문제를 제기해간다는 점,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것을 사회적 제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을 향해가는 발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안가족공동체의 활동과정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을 검토하면서 가족 변화와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쟁적 개별적 차원의 대항보다 복수적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통한 공동체적 대응이 보다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과도 같은 부분이어서 이하에서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실제, 대안적 친밀성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은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보이는 공간이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대안적 친밀성이 발현되는 물화한 공간, 장소로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흥동마을의 마을 여성들의 거점인 여농센터는 마을 여성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이것은 여성들 간의 친밀

성을 위한 만남 장소의 역할도 있지만, 이를 넘어, 센터 설치 이후 운영 조직의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점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사회정치적 의제를 창출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가 있었다(진명숙, 2020: 66-70).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에는 대안가족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대안가족과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거점으로서 대안가족센터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의 공공 영역으로 연결되는 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지역공동체가 가지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의제의 발현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가지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의제의 발현지임을 통한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성은 친밀권이 담론의 공간(濟藤純一, 2009: 111)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대안가족공동체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가구의 빈곤과 소외 그리고 증가하는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안가족의 주제로 해결해보고자 했던 점은 기존의 주민 없는 마을 사업 등에 변화를 불러오는 새로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노인대안가족사업의 모델사업으로서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까지 유사한 사업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비롯한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적 영역을 향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문제해결 접근의 패러다임 변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족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이를 위한 공동체적 대응으로서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대안가족을 지향하며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안가족공동체를 사례로 하여 그 특성과 대안적 친밀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가진다. 첫째,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사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둘째, 질적 사례연구에서 주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셋째, 이후의 확장된 과제로서, 가족 관련 문화 등이 다른 타 국가에서의 가족 대안 공동체와 대안적 친밀성에 대해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대선·오영란·조혜정·김혜정(2021). “성인기 연령집단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연구: 부산시민 을 대상으로.” 『NGO연구』, 16(2):301-336.
- 경향신문(2018). 1월 2일.
- 경향신문(2020). 3월 5일. 3월19일.
- 국제신문(2017). 12월 4일.
- 국제신문(2018). 1월 23일.
- 국제신문(2020). 12월 28일.
- 권용혁(2012).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철학』, 제23집:1-26.
- 김미영(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제27집: 181-218.
- 김상욱(2015). “핀란드 아라비안란타 로푸키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삶.” 『월간 주민자치』, 48:124-127.
- 김영란·송치선·이철선(2013).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 1인가구 돌봄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민(2018). “사회변화와 대안가족-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월간 복지동향』, 232:32-40.
- 김일범(2018). “대안가족허브센터 정겨움 운영평가.” <행복고령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형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운영모델 제시 토론회> 발표자료집, 2018. 12.26 9-26.
- _____(2021a). “빈곤없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현.” 『녹색도시 부산』, 제53호
- _____(2021b).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부산인권정책포럼 제 6차 포럼자료집> 2021.3.16. 49-51
- 김현(2019). “가족유물론, 돌봄공동체.” 『人文科學』, 제117집:119-154.
- 김혜경(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비혼청년층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155-198.
- 류경희·김순옥(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119-151.
- 류도향(2020). “가족적인 것의 확장: 유사성과 차이성.”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467-492.
- 서재호(2012).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

- 연구』, 2012(2):155-18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경아(2014). “가족과 개인, 개인화.”, 김혜경 외, 공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136-161. 서울:다산출판사.
- 이귀원(2017).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대천마을학교.” 『로컬리티 인문학』, 17:309-320.
- 이동옥(2020). “여성주의 관점에서 대안적 노인여성 공동체에 관한 연구:사회 참여와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6(2):75-108.
- 이동일(2015). “현대사회와 위기의 대안공동체.” 『사회사상과 문화』, 18(4):95-126.
- 이미정(2017). “비혼여성공동체로 사는 이야기.” 『여/성이론』, 37:331-340.
- 이선미(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42(5):101-139.
- 이진숙(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95-119.
- 장수정(2012a). “과천시 지역 공동체에 관한 연구-돌봄공동체 가능성과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심으로.” 『페미 니즘연구』, 12(2):31-68.
- _____ (2012b).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공동체 사례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1-31.
- 전지훈(2020).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제18호:297-339.
- 정성훈(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347-377.
- 진명숙(2020). “친밀과 돌봄의 정치경제학:충남 홍동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3(2):51-115.
- 차선자(2008).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7(2):39-72.
- 차성란(2019). “대안적 돌봄으로서 공동체 돌봄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109-132.
- 최희경(201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참여로서의 가족돌봄자 운동조직 사례 연구:영국 Carers UK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3):37-70.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2017, 장래가구추계자료2017
- 홍재봉(2018). “대안가족허브센터 정겨움 방향과 대안가족 운영모델.” <행복고령 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형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운영모델 제시 토론회> 발표자료집, 2018.12.26. 27-43.
- 황선영(2020). “돌봄공동체를 통한 좋은 돌봄(good-care)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 탐색적 연구-근거이론방 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67(4):5-46.
- 有賀美和子(2011). 『フェミニズム正義論:ケアの絆をつむぐために』, 東京: 勁草書房
- 落合惠美子(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전미경(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近代家族の曲がり角, 東京: 角川学芸出版, 2000.
- 千田有紀(2016). 『일본형 근대가족』, 김복순(역), 서울: 논형: 日本型 近代家族, Tokyo: Keisoshobo, 2013.
- 濟藤純一(2009).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류수연 윤미란(역), 서울: 이음: 公共性: 東京: 岩波書店, 2000.
- Berguno G, Leroux P, McAinsh K & Shaikh S.(2004). “Children’s experience of loneliness at school and its relation to bullying and quality of teacher interventions.” *Qualitative Report*. 9(3):483-499.
- Cacioppo, J. T. & Cacioppo, S.(2018). “Loneliness in the modern age: an evolutionary theory of loneliness(ET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127-197.
- Creswell, J. W.(2015).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역), 서울: 학지사: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 Elisabeth, B. G.(2008).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역), 서울: 새물결: *Was kommt nach der Familie?*, Munchen: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8.
- Engster, D.(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돌봄윤리와 정치이론』, 김희강, 나상원(역), 서울: 박영사;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Fineman, M. A.(2009). 『ケアの絆』, 田信子, 速水葉子(역), 東京: 岩波書店: *The Autonomy Myth-A Theory of Dependency*, New York: The New Press, 2004.
- Fraser, N. Gordon, L.(1994). “A Genealogy of Dependency: Tracing a Keyword of the U.S. Welfare State.” *Chicago Journals*, 19(2):309-336.
- Gold, A. G.(2005). “Conceptualizing Community: Anthropological Reflections a background paper for The Collaborative Initiative for Research Ethics in Environmental Health”,
<https://www.brown.edu/research/research-ethics/sites/Gold.pdf>(2021.8.13.일 검색)
- Hawkey, L. C. Cacioppo, J. T.(2010).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18-227.

- Kittay, E. F.(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Routledge
- Klinenberg, E.(2013).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안진이(역), 서울:더퀘스트: *Going Solo: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2012.
- Lefebvre, H.(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역), 서울:에코리브르: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Economica, 2000.
- Luhmann, (2009).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권기돈,조형준(역), 서울: 새물결: *Liebe als Passion:Zur Codierung von Intimita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2.
- McGinnis, M. V. House, F. Jordan, W.(1999). "Bioregional restoration Re-establishing an ecology of shared identity." Michael Vincent McGinnis(ed), *Bioregionalism*, 205-22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ely, E. L.(2012). "Two Concepts of Community." *Social Philosophy Today*, 28:147-158
- Poliny, K.(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역), 서울: 도서출판 길: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 Roseneil, S. & Budgeon, S.(2004). "Cultures of Intimacy and Care Beyond 'the Family': Personal Life and Social Change in the Early 21st Century." *Current Sociology*, Vol. 52(2):135-159.
- Sandel, M. J.(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역), 서울: 김영사: *Justice: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
- Tronto, J. C.(2014). 『돌봄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역), 서울: 아포리아: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2013.
- Weeks DJ.(1994). A review of loneliness concep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9:345-355.
- Williams, S. E. & Braun, B.(201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A Private Problem, A Public Issue," *Journal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111(1):7-14.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 and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intimacy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Busan Alternative Family Hub Center

Young Ran Oh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ae Sun K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local community activities respond through community care and protection to the family void that appears in today's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intended to explore its characteristics while examining various local communities appearing in previous studies. Alternative family community active in Busan's Alternative Family Hub Center was analyzed and considered as an analysis case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is, first, the local community's main characteristics were three characteristics: a caring community of 'caring with', a cooperative community of comm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a relationship-friendly community. Second, the alternative intimacy showed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tual reciprocity, the solidarity of interdependent independence, and intimacy of trust and friendship.

Based on these contents, this study discussed the extension to the public sphere for the sustainability of alternative intimacy of the local community.

Key Words: intimacy, alternative intimacy, community, alternative family, care

논문신청일: 2021.11.30.

논문심사일: 2021.12.21.

게재확정일: 2021.12.27.